

전략리뷰

Reviews on Views and Insights

2021-6호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의 한반도 안정 효과에 관한 두 가지 견해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의 한반도 안정 효과에 관한 두 가지 견해

김보미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1. 북핵 문제에 가려진 재래식 전력 증강

전략표적 타격을 비롯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에 관한 소개와 그것이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전문가들의 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International Security* 2020/2021년 겨울호에 게재된 바우어와 히임(Ian Bowers and Henrik Hiim)의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관한 분석이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었다.¹⁾ 한반도와 핵심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유럽학자들의 글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국제적으로 정책적·학문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인의 시선에서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을 조명한 글들은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군사력 증강의 득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실 그동안 한반도 군사문제는 북한 핵위협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한반도 밖에서 한국 군사문제가 관심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특히 정책적 측면과 학문적 측면 모두 국제적 수준에서 북핵문제와 동등한 수준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 문제가 다루어지진 못했다. 최근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해 해외의 학자·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담론의 배경과 함의를 짚어보고 향후 우리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의 구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2.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해외학자의 비판적 시각

1) Ian Bowers and Henrik Stålhane Hiim, "Conventional Counterforce Dilemmas: South Korea's Deterrence Strateg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Security*, Vol. 45, No. 3 (2020/21 Winter), pp. 7-39.

마크 에피스코포스(Mark Episkopos), National Interest 기자 National Interest 기고문/ 2021. 3.26²⁾



마크 에피스코포스는 북한이 2021년 3월 단거리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였다면서 한국이 북한의 임박한 핵 위협을 통제하기 위한 다층적 핵심 전략 중 하나로 킬체인(Kill Chain)을 활용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킬체인은 북한의 정치 상황과 군사적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정보 및 감시자산을 활용하고 군사자산에 대해서만 신속 정밀 타격에 착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에피스코포스는 킬체인이 북한의 임박한 공격을 분별해내고 공격대상이 되는 모든 장소들을 적시에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패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급속한 재래식 능력의 성장에 힘입어 이러한 단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킬체인은 2012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보다 현 시점에서 훨씬 실현가능한 옵션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 마크 에피스코포스의 기고문은 향후 킬체인 교리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정보자산의 능력 발전 여하에 달려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킬체인이 북한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선제타격 개념을 갖는 만큼 능력면에서 완벽성을 갖추어야 하며 사용 결정에 신중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안 바우어(Ian Bowers) 왕립덴마크국방대학 부교수 헨릭 히임(Henrik Hiim) 노르웨이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War on the Rocks 기고문 / 2021. 2.11³⁾

2)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how-south-korea%E2%80%99s-%E2%80%98kill-chain%E2%80%99-could-strike-north-korea-first-war-181181>

바우어와 히임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재래식 첨단능력을 통해 억지하는 ‘독특한 방법’(3축체계: 킬체인, KAMD, KMPR)을 취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한국이 현재 첨단 정보, 감시, 정찰 자산뿐만 아니라 공중, 해상, 지상 발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급증하는 전력에 투자하여 정밀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음에 주목한다. 바우어와 히임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발전은 미국의 방기위협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강한 재래식 전력은 미국의 확장억지 공약이 불확실하더라도 북한의 핵위협과 한미동맹의 디커플링(decoupling)의 위험을 미약하게나마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한국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같은 우월한 재래식 능력은 미국이 한국을 방기하더라도 북핵위협을 감소시킴으로써 한국이 독자적인 핵능력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남북간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한편, 위기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북한은 지역 미사일 방어체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근 신형 단거리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술핵무기와 SLBM 개발은 군비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대군사전략과 대가치전략이 모두 “선제적”인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위기시 오히려 북한의 핵사용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참수작전은 북한 지도부에게 “이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 (use-it-or-lose-it)”는 생각을 심어주어 위임된 핵지휘통제체계를 채택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북미협상이 해결점을 찾더라도 한국의 우월한 재래식 능력이 남아있는 한 북한의 핵군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기 때문에, 한반도 재래식 전력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3)

<https://warontherocks.com/2021/02/south-korea-conventional-capabilities-and-the-future-of-the-korean-peninsula/>

☞ 바우어와 힘은 덴마크의 군사대학과 노르웨이의 국제문제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학자들로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바우어와 힘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이 오히려 한반도 위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한 논의가 주로 국내적 수요에 의해 당 위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었던 측면이 컸던 만큼,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비판적 입장은 재래식 군사력 발전 방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이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하여 나름의 대응책으로서 재래식 전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서도 군비증강이 한반도 안보딜레마를 촉발한다는 저자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맞춤형 억지전략’의 당위성

이만석(Manseok Lee) 소령·함형필(Hyeongpil Ham) 중령

War on the Rocks 기고문 / 2021. 4. 16.⁴⁾



함형필 대령과 이만석 소령은 한국의 맞춤형 억지전략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우어와 힘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맞춤형 억지가 △북한의 핵 사용 위험성 증가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위협 △북한의 핵 보유 동기 강화를 초래한다는 바우어와 힘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우선, 한국처럼 경제규모가 큰 민주주의 국가는 핵보복을 두려워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미국과의 협의 없이 재래식

4)

<https://warontherocks.com/2021/04/south-koreas-conventional-forces-buildup-the-search-for-strategic-stability/>

군대를 운용할 동기가 부족하다. 따라서 강화된 재래식 능력이 북의 핵무기 사용위협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말한다. 또한 KAMD와 KMPR은 북의 선제적이고 기습적인 공격에 의한 위기고조 가능성을 차단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일방적인 군축조치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한국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계획을 축소한다면, 북한은 강압전략을 구사하거나 비대칭 군사적 이점을 바탕으로 현상타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100만 이상의 병력과 기계화 군단과 포병 사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이후에도 한국은 억지력과 안정을 위해 재래식 능력을 유지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함형필 대령과 이만석 소령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며, 북핵 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재래식 전력 증강이 다른 의도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따른 자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재래식 전력 강화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다만 우리의 의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북한에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은 앞으로 과제로 남는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 증강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하는 우리 군과 효용성 및 한계를 지적하는 해외학자들의 견해가 상반되고 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전략표적 타격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같은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해외학자들은 현재 북핵에 대한 위협을 재래식 무기로 억지하겠다는 한국의 목표가 달성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사력 증강이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군사력 불균형을 초래해 북한 비핵화 합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북핵위협 증가에 따른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응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

해외와 국내에서 이 같은 견해 차이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재래식 전력의 증강 이유를 달리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바우어와 히임은 한국이 북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기위협에 대한 대응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다소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군비경쟁이 일어나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함형필과 이만석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으며 오로지 북한 핵위협을 억지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북한이 핵능력 증강을 통해 현상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재래식 능력 강화는 한국 나름의 대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쟁이 우리의 전략구상에 주는 함의는 재래식 전력 강화가 한반도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북한의 핵능력 증강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북한의 핵능력은 한국의 재래식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북핵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보다는 억지하기 위해 존재하고, 비핵화 협상진전에 따라 유연하게 남북간 재래식 군축이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우어와 히임의 글과 함형필과 이만석의 글은 위협인식과 군비증강, 군사적 균형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 학자들은 북한의 핵위협에 재래식 전력 강화로 대응함으로써 군사적 균형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일부 해외학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대북 위협인식의 차이가 한국의 재래식 전력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각기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의 현실과 이론, 두 영역 모두에서 위협과 군비경쟁, 안보딜레마는 여전히 논쟁적 이슈이다.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력 증강을 다루고 있는 두 시각의 차이도 현실과 이론이 모두 이러한 논쟁의 연장선에서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이론, 두 영역 모두에서 대화와 상호 이해의 증진이 안보딜레마와 본질적으로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